

##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사례분석을 통한 소모전의 새로운 이해\*

Carter Malkasian 著\*\*

羅棟煜 譯\*\*\*

1. 머리말
2.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
3.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사례연구
4. 결론

### 1. 머리말

전쟁수행연구에 있어 '소모전(attrition)'은<sup>1)</sup>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

\* 본고는 미국의 군사저널인 *Journal of Military History*에 실린 글 Carter Malkasian,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Attrition: The Korean and Vietnam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8, 2004를 번역한 것이며 저자와 저널로부터 번역 및 군사지 투고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음.

\*\* CNA Corporation 연구원

\*\*\* 육군대위

다. 보편적으로 소모전이라는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으로 대표되는 쓸모없고 유혈이 낭자하며 지루한 싸움으로 정의된다. 많은 역사가와 정치학자, 군인들은 '소모전략(strategy of attrition)'을 융통성 없고 피해가 큰 일련의 전투를 통해서 적이 질리도록 피 흘리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지휘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敵을 약화시키는 것과 아군 병사들의 생명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모전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은 왜 대다수의 '무자비한' 지휘관들이 항상 소모전을 채택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6·25전쟁(1950~53년)과 베트남전쟁(1965~73년)에서 사용된 소모전략에 대한 분석은 위의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제공한다. 첫째로 지휘관들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모전이 위에 설명된 보편적인 관념처럼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사례에서 보이는 소모전의 특성은 보편적인 관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많은 학자와 지휘관,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소모전과 6·25전쟁·베트남전쟁에서의 소모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왜 소모전을 연구하는가? 그것은 전쟁사연구에 있어 소모전연구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소모전은 게릴라전, 기동전 또는 핵전쟁과 동등한 전쟁수행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다른 전쟁수행방법은 전쟁사연구에 있어 적절한 영역을 부여 받아왔다. 그러나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소모전에 관해 깊이 주목하긴 했지만 그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sup>2)</sup> 소모전의 연구 성과가 빈약한

1) 본고에서 'attrition'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전쟁의 형태로서 '소모전'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군사전략의 하나인 '소모전략'을 뜻한다(역자 주).

2) Brian Bond, *The Pursuit of Military Victory: From Napoleon to Saddam Hussei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Russell F. Weigley, *The Age of Battle: The Quest for Decisive Victory from Breitenfeld to Waterloo* (London: Pimlico, 1993); Hew Strachan, "Attrition," *The Oxford Companion to Military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데 반해, 소모전의 창시자들에는 웰링턴공(Duke of Wellington), 크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델부룩(Hans Delbruk), 슬림(William Slim), 보프르(Andre Beaufre), 리델하트(Liddell Hart) 등 전략연구의 중심적인 거장들이 포함되어 있다.<sup>3)</sup> 또한 몇몇의 중요한 전쟁들이 최소한 하나의 전역에서 소모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 반도전쟁(Peninsular war),<sup>4)</sup> 나폴레옹의 러시아전역(1812 invasion of Russia),<sup>5)</sup>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딩 전투(Battle of Verdun),<sup>6)</sup>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전투(Battle of Britain)와<sup>7)</sup> 엘 알라메인 전투(Battle of El Alamein),<sup>8)</sup> 제1차 중동전쟁(Egyptian-

- 3) Wellington to B. Sydenham, 7 December 1811, *The Dispatches of Field Marshal the Duke of Wellington During his Various Campaigns in India, Denmark, Portugal, Spain, the Low Countries, and France*, vol. 5, enlarged edition, ed. John Gurwood(London: John Murray, 1852), 395;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106~107; Hans Delbrück, *History of the Art of War: Within the Framework of Political History*, trans. Walter Renfroe(London: Greenwood Press, 1975), 4: 108~109, 291, 293~294, 299, 309, 375, 423; William Slim, *Defeat into Victory* (London: Papermac, 1986), 315; André Beaufre, *Deterrence and Strategy*(London: Faber&Faber, 1965); B. 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 Meridian, 1991), 10, 13~14, 27, 114~119, 321.
- 4) 1808년~1814년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반도 침략에 저항하여 에스파냐·영국·포르투갈 동맹군이 벌인 전쟁(역자 주).
- 5) 1812년 대륙봉쇄령을 위반한 러시아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하였으나 러시아의 지연작전과 추위·병참의 어려움으로 패배하였다. 이후 급격히 몰락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역자 주).
- 6) 1916년 연합국의 경제봉쇄로 궁지에 빠진 독일은, 프랑스군의 베르딩 요새를 집중 공격하여 프랑스에 큰 타격을 주기로 계획하였다. 2월 21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6월 하순까지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동부전선으로부터의 압박으로 독일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10월 프랑스군이 도리어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독일군은 공세에 실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독일군 33만 6,000명, 프랑스군 30만 2,000명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세가 연합군으로 기운 결정적 전투였다(역자 주).
- 7)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굴복시킨 히틀러가 처칠에게 평화를 제의하였으나 처칠이 이를 거부하여 양국 간 전쟁이 촉발되었다. 히틀러는 항공 전력을 이용하여 영국을 굴복시키려 하였고 그 결과 영국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이를 '영국전역'이라고 부른다.(역자 주)

Israeli War)이<sup>9)</sup> 그 예들이다.

본고는 미국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전개한 소모전에 관해 고찰하려 한다. 세 가지 주요 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소모전의 관념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서는 대표성을 지니고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절대 적을 질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소모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또한 보편적 관념은 특성이 명확하게 정의된 단일하고 일관적인 소모전략이 역사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왔다고 보고 있지만,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나타난 소모전의 역사는, 일관된 원칙의 지속적인 전개이기보다는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구분된 진보 과정이며, 명백한 하나의 동일 전략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전전략의 결과이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교리는 아니었을지라도 6·25전쟁과 베트남전 사이에는 소모전에 대한 공통적인 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자에 전제된 과정은 단계적이고 잠식적으로 적의 군사적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은 전쟁수행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전술적으로, 소모전은 지형의 확보·효과적인 돌파·여건조성 작전등과 같은, 보다 많은 목표의 성취보다는 단지 적·간접적인 적의 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적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6·25전쟁과 베

- 8)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의 엘 알라메인에서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제8군과 롬멜의 북아프리카군단 간에 있었던 전투이다. 정상적인 보급을 받지 못하던 롬멜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하였으나 몽고메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패배하였다. 이후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세는 연합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으며 전체 전쟁의 정국에서도 스탈린그라드전투와 함께 전쟁의 향방이 바뀐 의미 있는 전투이다(역자 주).
- 9)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은 영국군의 철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5월 16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측 약 2만의 병력이 팔레스타인에 침입, 전세는 당초 아랍측이 우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공세로 아랍측은 패퇴를 거듭하였다. 이후 국제연합의 조정으로 1949년 2월 휴전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 결과 10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고 이른바 아랍계릴라가 조직되었으며 중동에서 긴 전쟁의序幕이 되었다(역자 주).

트남전쟁에서 사용된 소모전의 양상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게릴라, 테러리스트, 특수부대, 혹은 다른 비정규전부대보다는 정규군이 우선적으로 소모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sup>10)</sup>

세 번째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가지 요소—작전·전략적인 강제요소와, 이러한 강제요소들을 조절하기 위한 각각의 준비가 존재한다는 것—가 소모전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전쟁에 있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위협의 증가나 수적인 열세와 같은 작전·전략적 환경에 직면했고, 이 같은 환경은 정책결정자들이 소모전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모전을 수행하기로 교리를 전환했다. 그러나 위의 제한사항들만이 소모전수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웨스트멀랜드(William C. Westmoreland)나,<sup>11)</sup>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같은<sup>12)</sup> 정책결정자들이 제한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소모전을 적들을 압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두 전쟁에서 소모전이 수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시에 위의 세 가지 논제들은 소모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는 현저하면서도 일반적인 소모전의 예시로 인식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소모전의 보편적인

10)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 병력의 구성상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25전쟁이 정규군과 정규군 사이의 전투로 이루어진데 반해 베트남전쟁의 경우 정규군과 비정규군사이의 전투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두 전쟁에서 나타나는 소모의 양상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6·25전쟁의 빨치산 특별작전은 논외로 한다(역자 주).

11) 193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8년 공정사단장에 취임하였다. 19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1964년 주일미군사령관, 1968년 7월 육군참모총장에 취임, 1972년 7월 대장으로 예편하였다(역자 주).

12) 191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공수군단을 지휘하였다. 1950년 6·25전쟁에서는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었으며, 1951년 극동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1년 뒤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1953년 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 1955년에 퇴역하였다(역자 주).

개념과 이러한 사례들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소모전이라 불리는 것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현재 역사학·정치학·군사분야에서 보이는 소모전에 대한 이해는 실제 나타나는 소모전의 역사적 실체의 전형이 아니다. 아마도 소모전은 정교하고, 역사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용된 작전교리라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념화된 전쟁수행방법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사례들은 소모전이 유형이 넘치는 불필요한 전략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투력사용의 한 방편으로서의 소모전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소모전이 작전전략으로서 ‘개념화 및 적용’이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고찰해보자 한다. 때문에 작전이 적은 이익과 막대한 손실로 끝난 ‘결론’으로서의 소모전을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소모전”이 단지 전쟁에서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지휘관이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3)</sup> 또한, 수학적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술측면에서의 손실 교환이라는 의미의 소모전 역시 연구대상으로서 삼지는 않으려 한다.<sup>14)</sup>

작전전략은<sup>15)</sup>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통 적을 복종의 상태로 강요하는 수단을 포함하는—을 결정하는 전략에<sup>16)</sup> 입

13)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소모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Gary D. Sheffield, “Blitzkrieg and Attrition: Land Operations in Europe 1914~1945,” *Warfar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ory and Practice*, ed. Colin McInnes and Gary D. Sheffield (London Unwin Hyman, 1988), 51~79.

14) Frederick William Lanchester, “Mathematics in Warfare,” *The World of Mathematics*, ed. James Newma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6); John Battilega and Judith Grange, eds., *The Military Applications of Modeling*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1984), 63~111.

15) 저자는 이를 operational strategy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military strategy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저자의 용어사용을 따라서 ‘작전전략’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역자 주).

각해 수립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다.<sup>17)</sup> 일반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적국을 패배시킬 것인가를 다루지만, 작전전략은 적의 군사력이라는 명확한 부분을 다룬다. 러셀(Russell F Weigley)의 말을 빌리자면, 작전전략은 특정한 전역을 계획·조직·지시하며, 전투의 기술적 영역과 최고단계의 전략적 영역을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sup>18)</sup> 기동전, 對 게릴라전, 게릴라전 등이 이러한 작전전략의 예시들이다.

## 2.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

첫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은 저돌적이고 불필요하게 지루한 싸움이다. 이러한 관념은 전장에서 적을 불리한 지점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의 전투력을 쇠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는 기동전에 대한 저술들에 그 기원을 둔다. 정면공격이나 계획된 공격과는 반대로 대담하고 기동성 있는 작전은 주도권을 획득하고 적이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sup>19)</sup> 기동전의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이나 맥아더가 지휘한 6·25전쟁의 인천상륙작전,<sup>20)</sup> 1967년에 발발한 6일

16) 위와 마찬가지로 '전략'이라고 사용되는 용어는 national strategy를 지칭한다(역자 주).

17) Liddell Hart, *Strategy*, 319~333.

18)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73), xviii.

19) 최근의 기동전에 대한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Wallace Franz, "Maneuver: The Dynamic Element of Combat," *Military Review* 63 (May 1983): 2~12; Robert Leonhard, *The Art of Maneuver: Maneuver-Warfare Theory and AirLand Battle*(Novato, Calif.: Presidio, 1991); Richard Simpkin,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First Century Warfare*(London: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 William Lind, *Maneuver Warfare Handbook* (London: Waterview Press, 1985); Shimon Naveh, In *Pursuit of Military Excellence: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Theory*(London: Frank Cass, 1997).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이다.<sup>21)</sup> 1970년대 후반 보편적인 미군들은 기동전을 서유럽에서 소련의 침공을 확실하게 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내면서 저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했다.<sup>22)</sup> 군사분야와 학계의 저술들은 기동전의 정반대 개념으로서 소모전을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모든 서방국가의 군대와 거의 대부분의 학술저작물에서 받아들여졌다.<sup>23)</sup>

기동전의 주창자들은 소모전을 직접적이고 지루하며 유혈이 낭자한 창의 적이지 못한 작전전략이라고 묘사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면공격과 압도적인 포병화력이 적의 약점 대신 강점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시험하며 적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돌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며, 적이 퇴각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되었다.<sup>24)</sup> 이에 비해 기

20) 1950년 9월 15일, 북한군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에서 고전하던 미군과 한국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우회기동을 이용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 이후 북한군의 병참선이 단절되어 북한군은 급격히 붕괴했으며 전세가 역전되어 한국군과 미군은 급속한 추격 작전을 개시한다. 이 인천상륙작전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 기동력을 발휘하여 기습을 가한 기동전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역자 주).

21) 제3차 중동전쟁을 말하며 개전 6일 만에 종결되어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이스라엘군은 1967년 6월 5일 오전 7시 45분 안개를 틈타 아랍군의 비행장을 공습하여 무력화시킨다. 이어 지상작전을 전개하여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을 확보하여 자신의 영토보다 3.5배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전략적 완충지대를 얻게 된다.

22) William Lind, "Some Doctrinal Questions fo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Review* 77(January-February 1997): 135~144; Ernest Szabo, "Attrition vs. Maneuver and Future of War," *Armor*, September-October 2002, 39~41.

23) 위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저작물들을 참고하라.

David French, *British Strategy and War Aims, 1914~1916*(London: Allen & Unwin, 1986); "The Meaning of Attrition, 1994~1996," *English Historical Review* 103(April 1988): 385~406; Robin Prior and Trevor Wilson, *Command on the Western Front: The Military Career of Sir Henry Rawlinson, 1914~1918*(Oxford: Blackwell 1992); and Hew Strachan, "From Cabinet War to Total War: The Perspective of Military Doctrine, 1861~1948," *Great War, Total War: Combat and Mobilization on the Western Front, 1914~1918*, ed. Roger Chickering and Stig Förste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4) Edward Luttwak,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5(Winter 1980~81): 63.

동전은 '기동력(mobility)'을 이용하고 적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을 탐색하여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본고는 기동전의 관념으로부터 나온 소모전의 보편적인 이미지에 대한 네 가지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소모전을 통한 승리는 희생이 큰 전투에서 적과 교전을 통해 필연적으로 많은 사상자의 발생과 자원의 소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값 비싸다는 주장이다.<sup>25)</sup> 반복되는 적의 강점(strong point)에 대한 정면공격은 필연적으로 아군의 사상을 높이기 때문에 소모전을 수행하는 이는 적보다 많은 손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루트윅(Edward N. Luttwak)는 그의 저서 *Strategy: The Logic of War*에서 "소모전략에서는 적의 보복적인 소모가 흡수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서는 전쟁지속능력의 총체적인 우세 없이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적의 강력함에 비례해서 사상자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값싼 승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다.<sup>27)</sup>

두 번째로, 효과적인 소모전 수행은 경제자원의 지출과 높은 사상을 견디기 위해 수적 혹은 물질적으로 적을 압도하기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sup>28)</sup> 즉, 소모전은 강자의 방법이지 약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그의 저서 *Conventional Deterrence*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자(功者)는 반드시 그가 그의 많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군인과 장비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요점은 소모전에서의 성공은 대부

25) John Mearsheimer, "Maneuver, Mobil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6(Winter 1981~82): 106; H. Hayden, ed., *Warfighting: Maneuver Warfare in the U.S. Marine Corps*(London: Greenhill Books, 1995), 50.

26)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34.

27) Edward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92.

28) Hayden, ed. *Warfighting*, 50.

분 적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공격과 방어 사이 손실의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측이 상대에게 승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sup>29)</sup>

세 번째로 작전적 수준에서 소모전은 적의 강점과 집결된 적 부대를 목표로 삼고, 정면공격에 더하여 압도적인 양의 포격과 폭탄 사용을 통해 규칙적인 파괴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과 같다는 주장이다. 소모전에서 기동은 작전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화력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여겨진다.<sup>30)</sup> 또한 루트윅은 소모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소모는 공정한 과정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이다. 적은 단순한 표적의 배열로서 다루어지며, 작전의 성공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력의 축적효과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러한 전쟁형태를 더 잘 수행하는 방법은 전술적으로 반복되는 레퍼토리를 따라, 표적획득·기동·충분한 재보급 기술을 보다 잘 정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적의 보복적인 소모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sup>31)</sup>

이 같은 이유로 스트라찬(Hew Strachan)의 군사적인 용병능력보다는 경제적인 우세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up>32)</sup>

네 번째 주장은 소모전이 완전한 적의 섬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소모전의 보편적인 관념에서는 적은 섬멸되거나, 혹은 계속적인 손실을 견디지 못해 항복을 결심하기 전까지 계속 소모된다. 강제된 강화 협상 또는 영토의 방어와 같은 제한된 목적은 결코 소모전의 목표가 아니다.<sup>33)</sup> 정치학자인 후트(Paul Huth)는 그의 저서 *Extended Deterrence and the Outbreak*

29)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34.

30) Hayden, ed. *Warfighting*, 49~50, 67.

31) Luttwak, *Strategy*, 92.

32) Strachan, "Attrition," 105.

33) Hayden, ed. *Warfighting*, 36; Sheffield, *Blitzkrieg and Attrition*, 51; Leonhard, *Art of Maneuver*, 19.

of War”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소모전략의 목적은… 적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다. 소모 전략을 구사하는 공자(功者)는 급격하고 결정적인 승리의 연속보다는 전투를 잘 견디내기를 기대한다. 전투의 목표는 높은 손실률을 보다 잘 감내하여 적을 마멸시키고 상대편 보다 오래 견디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소모전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의 전형은 결코 지휘관들이 왜 그러한 낭비적인 작전전략을 적용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저술가들은 소모전략을 구사하는 이들이 그들의 적보다 수적 물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소모전을 적용한다고 간단하게 주장한다.<sup>35)</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지휘관들이 심지어 인적·물적으로 우세함에도 손실을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저술가들에게 있어 ‘왜 소모전이 적용되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이유는 지휘관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루트워크는 소모전이 조심성 없이 단순하다는 것을 던지시 알린다. “배치 가능한 보다 큰 부대는 소모 가능성이 더 크다. 작전적 수준에서… 그 속성상 단순하게 주로 정면공격을 지속하는 전술 행동들을 협조하는 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sup>36)</sup> 이러한 견해는 은연중에 뛰어나거나 책략이 풍부한 지휘관은 소모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게다가 심프킨(Richard E. Simpkin)은 소모전략의 주창자들에게 “기동전의 대가들(masters of manoeuvre)”과 비교되는 “소모전 중독자들(addicts of attrition)”이라는 불명예스런 명칭을 붙였다.<sup>37)</sup> 보다 노골적으로 레온하트(Robert R. Leonhard)

34) Paul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Outbreak of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June 1988) : 427.

35) Hayden, ed., *Warfighting*, 37.

36) Luttwak,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77.

37) Simpkin, *Race to the Swift*, 20, 73~74.

는 그의 저서 *The Art of Maneuver*에서 베트남전쟁사가인 팔머(David Palmer)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지지했다.

소모전은 전략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떠한 전략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다. 소모전에 의존하는 지휘관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는 術(art)로서의 전쟁을 거부하고 상상 가능한 가장 훈련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을 받아들인다. 그는 두뇌 대신 피를 이용한다.<sup>38)</sup>

### 3.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사례연구

본고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으로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보이는 소모전을 선택하고자 한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4월 중의 6·25전쟁에서 중국이 참전한 이후 미군과 유엔군은 소모전략을 전개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1965년을 넘어서 점차적으로 베트남(Viet Cong-VC, South Vietnamese insurgents)<sup>39)</sup>과 북베트남군에게 패배하는 빈도가 증가하자 점진적으로 소모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몇몇 역사적 자료들은 두 전쟁 모두를 소모전의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sup>40)</sup> 따라서 필연적으로 위의 자료들

38) Leonhard, *Art of Maneuver*, 76.

39)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1960년에 결성된 베트남민족해방전선(Vietnamese 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소속의 단체로서 정식명칭은 Viet Nam Cong San이며 베트남공산주의자라는 뜻이다(역자 주).

40) Matthew Ridgway, *The Korea War*(New York : Da Capo, 1967) ; David Rees, *Korea : The Limited War*(New York : St. Martin's Press, 1964) ; Andrew Krepinevich, *The Army and Vietnam*(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Robert Komer, *Bureaucracy at War : US Performance in the Vietnam Conflict* (London : Westview Press, 1986) ; Guenter Lewy, *America in Vietnam*(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안에서 두 전쟁의 성격은 앞서 논의한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이 반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두 사례 사이에 보이는 일부 상이점들은 소모전이 지니고 있다는 '보편적 관념'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두 전쟁에 대한 분석이 모호하게 보이는 소모전에 대한 정의와 왜 그것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은 소모전략이—보편적인 소모전의 관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sup>41)</sup>— 과연 연속적이고 단일한 전략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두 전쟁은 냉전기간 중 매우 유사한 전략적 제한성 아래서 발발하였다. 미국과 미군을 포함하는 국가적·작전적 상황의 유사성은 직관적으로 두 사례 사이의 연속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가트너(Scott Gartner)와 마이어(Marissa Myers)는 그들의 저서에서 두 전쟁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소모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동원된 병력 수는 6·25전쟁 기간 중 수립된 정책과 베트남전의 소모전이 지닌 연속성을 보여주었으며, 정치적·군사적으로 독특한 상황을 드러내는 새로운 수단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sup>42)</sup>

그러나 대조적이게도 베트남전쟁과 6·25전쟁의 소모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전에서 소모전은 6·25전쟁에서 보이는 소모전의 형태를 전해 받은 것은 아니다.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례의 연속성의 부재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소모전략을 정의내리는 시도에 대한 의심을 촉발케 되는 것이다.

## (1) 소모전략과 6·25전쟁

1951년 초반, 6·25전쟁에서 소모전은 미군과 유엔군의 작전전략이 되었

41) 역자 삽입.

42) Scott Gartner and Marissa Myers, “Body Count and ‘Success’ in the Vietnam and Korean War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5(Winter 1995) : 377, 379, 381.

다. 수적 열세와 결합된 위협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소수의 실현가능한 대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지웨이와 워싱턴의 수석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이전까지 수행해 오던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운용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군사력의 사용 방법으로서 소모전략을 적용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다.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의 지휘아래 UN군과 미군은 6·25전쟁 초기 5개월간 결정적인 승리와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세적인 작전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1951년 9월 육해공군 합동으로 측방기동의 형태로 실시된 인천상륙작전과 이어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국경선이었던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기동전(manuever warfare)이었다. 적을 섬멸하는 것은 남북전쟁(Civil War),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의 특징적인 전략이었다.<sup>43)</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진하는 전방부대가 공세적인 역습에 노출되기 때문에 맥아더가 구사한 섬멸과 기동의 결합은 작전적으로 매우 위험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을 섬멸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배후세력인 중공(People's Republic of China, PRC)과 소련(Soviet Union)을 위협하기 쉬웠다. 게다가 인민해방군(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으로 구성된 인민지원군(Chinese People's Volunteers, CPV)이 1950년 11월 말에 참전하였고, 전역이 시작되자, 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은 한중국경까지 진격하여 전선이 신장된 UN군을 거의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에 미 제8군은 38도선 남쪽으로 혼란스런 철군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배는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을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남한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익해보였다. 전쟁 초기의 작전전략은 가용하지 않았다. UN군

43) *Ibid.*, 382.

은 모험적인 기동과 대담한 진격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많은 사상자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었다. 반면 중공군은 압도적인 수적우세를 통해서 UN군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었다. 리지웨이는 후에 무모한 전진은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의 함정에 걸리기 쉬웠다고 기술했다.<sup>44)</sup> 미 합동참모부(U.S. Joint Chief of Staff, JCS)는 많은 수의 미군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기록에 따르면, 합참은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가 미군을 견제함으로써 서유럽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다.<sup>45)</sup> 즉, 6·25전쟁을 소련의 서유럽 침공을 위한 양동작전으로 추측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고 6·25전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6·25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 혹은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소련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중공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 11월 28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가 소집되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샬(Geroge C. Marshall)은<sup>46)</sup> 6·25전쟁이 소련 또는 중공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UN군이 남한에서 방어선을 유지하고 너무 공세적인 맥아더의 작전전략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맥아더의 작전전략은 공세적인 측면포위 기동과 북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맥아더의 전략은 중공의 개입을 확대시키거나 소련이 전쟁에 참가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였다. 또한 마샬은 미국이 중공의 국경을 공격한다거나 UN의 노력을 옹호하여 대만군이 전개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44) *Ibid.*, 385.

45) JCS Meeting, 1 December 19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6,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 Crisis: Korea*(Washington: GPO, 1976), 1246. Cited Hereafter as *FRUS 1950: CIA Memo*, 2 December 1950, *ibid.*, 1309.

46) 펜실베이니아 주 유니온타운에서 출생하여 1901년 버지니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모총장을 지내며 후방에서 미군의 전쟁수행을 지원하였다. 루스벨트대통령의 조연자로 활약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트루먼대통령 밑에서 1947~1949년 국무장관을, 1950~1951년에는 국방장관을 역임하였다(역자 주).

자극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허가하지 않았다.

브래들리(Omar N. Bradley)가 의장으로 있던 합동참모본부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Dean Acheson)은<sup>47)</sup> 미국이 확전을 피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 하였다.<sup>48)</sup> 이에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가 며칠 지나지 않아 제한적인 계획의 기초를 입안했다. 러스크의 목표는 UN군의 안전을 증대하고, 전면전을 회피하며,<sup>49)</sup> 전쟁을 한반도지역에 한정하고,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전투를 중지시키며, 동맹군과 함께 견고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sup>50)</sup>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열린 회의에서 주요 국방·외교 정책결정자들은 증가되는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한된 목적을 적용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제한전쟁 수행을 골자로 하는 합의는 1950년 12월 초에 열린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과 애틀리(Clement Attlee) 영국총리의 회담에서 공고화되었다. 그들은 제한전쟁을 수행하며, 한국에서의 UN군의 진지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로 하였다. 트루먼-애틀리 회담의 결론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필요로 했다.<sup>51)</sup>

이에 미국은 전쟁의 확대 없이 상황을 안정화 시키는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필요로 했다. 국무부와 러스크 극동담당 차관보는 처음으로 소모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주목했다. 클러브(Edmund Clubb)는 러스크에게 제한된 목표와 군사행동의 상관관계 검토를 담고 있는 서신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47) 미국의 행정 관료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외교문제해결의 중책을 수행했고 '애치슨 라인'과 '애치슨플랜'으로 유명하다. 대 소련유화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역자 주).

48) NSC Meeting, 28 November 1950, *ibid.*, 1243, 1246.

49) 당시 미국에게 있어 6·25전쟁은 국지전이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전면전은 소련 혹은 중국 사이의 세계대전을 의미했다(역자 주).

50) Conversation of Lucius Battle and Dean Acheson, 1 December 1950, *ibid.*, 1301.

51) Truman-Attlee Communique, 8 December 1950, *ibid.*, 1477.

UN군에 대해서 실행하는 군사행동은 그것 자체로 중공의 자원을 소모시키게 될 것이다.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서양의 유엔 회원국이 그렇지 못한 것에 반하여 중국이 캐히 그들의 인력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물적자원의 고갈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증거도 결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sup>52)</sup>

1950년 12월 21일, 러스크는 제한전쟁 수행을 위한 상세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작성했다. 비망록의 내용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지 않는 한 맥아더는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는 38도선 부근에서 휴전을 한다는 것이었다.<sup>53)</sup> 러스크는 12월 말에 열린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 합동참모본부, 애치슨 국무장관, 마셜 국방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소모전과 휴전을 연결시켰다. 러스크는 클럽의 소모전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면서 군사행동의 요점을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손실을 입힘으로써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수용하는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sup>54)</sup> 그는 이것이 미국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는 군사적 승리의 추구하고 철수 사이에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러스크의 제안은 정치적 협상이라는 중요 측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의(*de facto*)’ 군사전략이 되었다. 합참은 다양한 문서에서 전투의 목적을 중공이 군사작전을 실시하는데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어를 지속하는 동시에, 전면전이 되

52) Director Edmund Clubb to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 7 December 1950, *ibid.*, 1444.

53) Dean Rusk, Memorandum entitled “Courses of Action in Korea,” December 1950, *ibid.*, 1588.

54) Memorandum of Conversation, 27 December 1950, *ibid.*, 1600.

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55)</sup> 또한 마셜은 애치슨에게 전략의 목표가 중공에게 그들이 정전을 결심하도록 많은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sup>56)</sup> 이에 더하여 마셜과 트루먼은 중공에 소모전을 전개하는 것이 전쟁의 전개방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 동의했다.<sup>57)</sup>

1950년 12월 29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러스크의 제안에 기초한 한국내 미국의 전략에 관한 훈령을 하달했다. 합참은 맥아더에게 한국은 주요전쟁지역이 아니며 미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했다. 대신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 국가 이익임을 밝혔다. 또한 합참은 맥아더에게 “연속되는 전선을 방어하고… 한국내의 적들에게 가능한 타격을 가하며, 예하부대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아라.”라고 훈령하였다.<sup>58)</sup> 트루먼은 1951년 1월 12일 하달된 합참의 다른 메시지에서도 맥아더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특히 전면전을 회피하도록 직접 훈령을 하달하였다.<sup>59)</sup>

그러나 러스크의 전략이 소모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6·25 전쟁 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작전전략은 아니었다. 소모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협상과 군사행동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했다.

워커의 사후 1950년 12월 26일 리지웨이가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리지웨이는 오로지 적을 섬멸하도록 훈련된 부대에게 제한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곤란한 과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전후 진술에서 “나

55) JCS to George Marshall, 12 January 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7, part 1,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 Conflict*(Washington: GPO, 1977), 71. Cited Hereafter as *FRUS 1951*.

56) Memorandum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Defense George Marshall and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0 January 1950, *ibid.*, p. 57.

57) Memorandum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Harry Truman and Marshall, 11 January 1951, *ibid.*, 41.

58) JCS to General Douglas MacArthur, 29 December 1950, *FRUS 1950*, 1625.

59) JCS to MacArthur, 12 January 1951, *FRUS 1951*, 71 77.

는 당시 미국의 교리가 제한전을 계획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의 개념은 언제나 총력전이었고, 승리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사용 가능했었다.”<sup>60)</sup> 그러나 리지웨이는 트루먼과 합참이 절대 제3차 세계대전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리지웨이는 제한전 수행을 수용했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모든 전쟁은 정치적 목적과 민군관계에 큰 초점을 맞춘 제한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sup>61)</sup>

취임 직후부터 리지웨이는 소모전을 전개했다. 그는 다른 대안들, 특히 맥아더의 작전전략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나 확장가능성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믿었다. 소모전은 감내할 수 없는 손실 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리지웨이는 1951년 2월 8일 소집된 군단장회의에서 UN군을 보호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붕괴시키는 것이 작전의 커다란 목적임을 밝혔다. 그는 작전지침에서 “나의 목적은 지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을 살상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62)</sup> 단순히 소유를 위해 지형을 탈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sup>63)</sup> 지형을 고수하는 것은 단지 UN군 병력을 고착시킴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역습으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이었다. 리지웨이가 지니고 있던 소모전에 대한 생각은 제8군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반면 적의 사상자를 최대화 하는 것이었다.<sup>64)</sup> 정면공격, 무모한 전진 혹은 고수방어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았다.

제8군 소속 부대와 지휘관들의 못마땅해 하는 반응에도 리지웨이는 효과

60) Maurice Matloff, Matthew Ridgway Oral History, 19 April 1984, 14~17, United State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USAMHI), Carlisle, Pennsylvania.

61) Ridgway to General Lawton Collins, 29 December 1950, Box 20, Matthew Ridgway Papers, USAMHI.

62) Allan Millett, ed., *The Korean War*(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1), 2:434.

63) Minutes of Conference with Corps Commanders, 8 February 1951, Edward Almond Papers, USAMHI.

64) Daily Historical Report, 3 January 1951, Box 22, Ridgway Papers.

적인 소모전 수행법개발을 독촉했다. 그는 예하 참모와 군단지휘관이 참가한 1월 5일의 회의에서 방어계획의 윤곽을 잡았다. 당시 예상되던 공산주의자들의 다음 공세를 전방진지에서 막기보다는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여 방어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sup>65)</sup> 그 계획에는 병력에 대한 어떠한 희생이나 포기도 없었다.<sup>66)</sup> 또한 군단장이 직접 상황을 관찰하고 명령을 하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진지도 없었다.<sup>67)</sup> 리지웨이는 철수하는 도중 최대한 지연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했다. 그는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중공이 강력한 공세로 나올 경우 아군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과업은 완강한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군은 공세에 몰리자 작전을 신속히 중지하고 한강을 건너 24km 후방에 미리 준비된 새로운 방어선으로 후퇴했던 것이다.<sup>68)</sup>

“적이 함정에 빠질만한 곳에서 강력한 부대로 역습을 가하고 적을 분리시킬 기회를 포착하라”<sup>69)</sup>라는 지시에 맞추어 역습을 위한 전술적 호기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아군의 철수를 통해 발생하는 적의 보급선 신장 역시 소모전의 구성요소였다.<sup>70)</sup> 신장된 적 보급선은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65) Colonel Blair, Ridgway Oral History, Interview 4 undated, p. 64, USAMHI.

66) Ridgway to MacArthur, 5 January 1951, Box 20, Ridgway Papers.

67) Ridgway conversation with Colonel Bullock and Colonel Clarke (G-3 EUSAK), 21 February 1951, Box 20, Ridgway Papers.

68) *Soldier: The Memories of Matthew B. Ridgway*(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56), 211.

69) Memorandum of Conference with Eight US Army Korea(EUSAK) Staff and Corps Commanders, 5 January 1951, Box 20, Ridgway Papers.

70) Matthew Ridgway, Memorandum, February 1951, Chief of Staff, Eight Army

취약점을 드러내고 공습을 가하기 유리한 표적을 제공하였다. 리지웨이는 1월 11일 예하 군단장들에게 하달한 작전명령에서 방어적 소모전을 정형화하였다.<sup>71)</sup>

미 제8군은 서울의 남쪽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공세(3차 공세)를<sup>72)</sup> 받아넘겼다. 그러나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못했으며,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전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리지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매우 분노했다. 리지웨이는 미 9군단 사령관인 쿨터 소장(Major General John B. Coulter)에게 앞으로의 전투에서 단 하나의 대대 또는 중대도 손실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명령했다.<sup>73)</sup> 특히 그는 불필요한 역습으로 적이 1,980명 사상한데 반해 미군이 1,921명 사망한 것에 대해 미 2사단장에게 불만스러워 했다.<sup>74)</sup> 리지웨이는 지연전과 역습을 통해 미 8군의 철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sup>75)</sup>

중공군의 3차 공세를 격퇴한 뒤 리지웨이는 소모전의 공세적 운용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리지웨이는 2월 초에 공세계획을 맥아더에게 보고했다. 38도선을 향한 급속한 전진은 제8군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

Correspondence, RG 500,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Washington, D.C.

71) EUSAK Conference, 11 January 1951, Box Ridgway Papers.

72) 신정공세라고도 한다. 중공군 현지 사령관 팡덕회는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강력한 공세를 실시한다. 공세는 한국군을 먼저 격멸하여 방어선의 균형을 무너뜨린 후에 미군을 비롯한 UN군은 분할·섬멸하다는 기본 원칙하에 5개 군을 주공으로 동두천-서울축선을 지향하였고, 조공으로 2개 군을 가평-청평방향으로 북한군 2개 군단을 자은리-홍천방향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리지웨이는 즉각적인 방어계획을 수립, 서울을 방어하는데 고집하지 않고 전세에 따라 유연한 철수를 통해 적의 출혈을 강요하였다. 결국 평택-제천-단양-영월-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전선이 안정되었고 중공군의 공세는 좌절되었다(역자 주).

73) Ridgway to Major General John Coulter, 20 January 1951, Box 20, Ridgway Papers.

74) Memorandum on 2nd U.S. Division Casualties, 25 March 1951, Box 17, *ibid*.

75) EUSAK Conference with Corps Commanders, 8 January 1951, Box 20, *ibid*.

었다. 따라서 제1·9군단은 서로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여 적의 전투력 수준과 병력의 손실 그리고 미 제8군의 목표인 한강을 향한 전진 가능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진하기로 했다. 한강을 넘어 진출하는 것은 과도한 신장에 비례하여 득될 점이 없었다. 게다가 리지웨이는 동부전선에서 미 제 10군단과 한국군 예하의 군단의 협조된 전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공격은 지나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의 저항이 충분이 약하다고 드러난 곳에 실시되었다. 맥아더는 리지웨이의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강조사항을 하달하였다.

적의 그의 주도권과 상응하는 한계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적 계획에 변동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전장을 선택함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을 그들의 기지에서 이격시킴으로서 전투에서 군사적 손실을 강요하고, 그들의 방어적 취약점에 대하여 우리의 해·공군을 보다 많이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인력과 보급에 대해 그들이 지치도록 계속해서 소모시켜야 한다.<sup>76)</sup>

Thunderbolt작전<sup>77)</sup> Roundup작전<sup>78)</sup>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limited objective attack)의<sup>79)</sup> 표준 형태로서, 주의 깊은 단계적 공세로 미 8군은

76) Text of MacArthur Speech to Press, February 1951, Box 17, *ibid*.

77) Thunderbolt작전은 중공군의 3차 공세이후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1951년 1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부전선 일대에서 실시된 UN군의 반격작전이였다. 작전의 목적은 한강선까지 좀 더 강력한 작전을 실시하여 전선을 추진시키고 대규모 반격 작전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이에 리지웨이는 제 1·9군단에게 각각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연대를 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전부대들은 함포 및 공중지원을 받으며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본래 작전의 목적은 인천-서울-양평을 잇는 선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남한산-양자산을 연하는 U자형 돌출부를 중공군의 교두보로 남겨둔 채 작전이 종료되었다(역자 주).

78) Roundup작전은 서부전선에서 미 제 1, 9군단이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동부전선의 미 10군단과 한국군 3군단이 제천-영월지역의 돌파구내 북한군을 소탕하고 원주-평창선으로 진출한 작전이다. 그렇지만 공격부대가 횡성을 통과한 후부터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작전이 종료되었다(역자 주).

최소한의 손실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sup>80)</sup>

1951년 2월 리지웨이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개념화하였고, 그것은 소모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공세적 과정이 되었다.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은 지형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 병력을 살상하는 것을 추구했다.<sup>81)</sup> 지형은 단지 8군 방어진지의 전술적 강화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시되었다. 리지웨이는 제8군의 방어강도를 강화시키고 적에게 많은 사상자를 강요하기 위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능선을 공략하기를 원했다.<sup>82)</sup> 도시들은 적을 파괴하는 부산물로서 재 확보될 것이었다. 국지적인 병력과 물자의 우세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전술적으로 우세한 부대가 적에 대한 측면포위 또는 포위를 실시하여 적을 격멸하고, 조직적인 화력의 대량사용으로 적의 방어선은 약화되며 UN군의 인명손실은 감소하게 될 것이었다.<sup>83)</sup> 추격은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함 속에서 수행되었고, 급속한 전진은 병참선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무모하거나 혼란스런 추격은 지양되었다. 리지웨이는 맥아더에게 아군의 군수보급능력은 나의 작전과 모든 진격계획에 있어 통제요소이며, 진격은 군수지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이 명확할 때만 이루어질

79) 본고에서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limited objective 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통 '위력수색작전'이라는 지칭한다. 작전의 형태는 전차·포병·공병으로 증강된 제한된 규모의 부대를 투입하여 敵情을 살피고 적의 출혈을 강요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작전을 저자가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전의 목적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거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작전이 아닌 敵情 파악과 적의 회생을 가용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초로 시행된 Wolfhound 작전에서 미 1군단은 10명의 손실을 입고 1,200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어 작전의 효용성이 증명되었다. 본고에서는 원저자의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위력수색작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역자 주).

80) Ridgway to MacArthur, 3 February 1951, Box 20, *ibid.*

81) Ridgway Conversation with MacArthur, 13 February 1951, Box 20, *ibid.*

82) Historical Records, 4 February 1951, Box 22, *ibid.*

83) Lieutenant General Edward Almond, Conference on UN Military Operations in Korea, 29 June 1950~31 December 1951, undated, Almond Papers.

것이다."라고<sup>84)</sup> 말하며 그의 작전계획에 있어 보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리지웨이는 그의 부대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은 위험하거나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다.<sup>85)</sup> 그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기 위한 대담한 공격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sup>86)</sup> 전술적 측면에서, 그는 군단장들에게 저항이 강한 진지는 공격하지 않도록 지시했고,<sup>87)</sup> 나타나는 성과가 손실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의도가 파악당할 수 있는 정면행동이나 희생이 큰 전술행동은 지양했다.<sup>88)</sup>

리지웨이는 2월부터 4월까지 성공적인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Operation Killer,<sup>89)</sup> Ripper,<sup>90)</sup> Rugged<sup>91)</sup>)을 수행했다. 미 제8군은 서울

84) Ridgway to MacArthur, 22 March 1951, Box 20, Ridgway Papers.

85) Ridgway Conversation With MacArthur, 13, February 1951, Box 20, *ibid.*

86) Ridgway to Corps Commanders, 27 March 1951, Box 20, Almond Papers.

87) Ridgway meeting with MacArthur, 8 March 1951, Box 20, Ridgway Papers.

88) Ridgway, Wire Transfer, 23 February 1951, *ibid.*

89) 중공군의 4차 공세 이후 중동부전선에서 1951년 1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된 반격작전이다. 중공군 공세결과 발생한 제천-영월의 돌출부를 제거하고 돌출부내의 공산군을 격멸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으로 적 병력격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작전명칭도 'killer'라고 하였다. 미 제8군은 양평-횡성-평창을 연하는 Arizona선으로부터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약화된 기상조건으로 작전이 원활이 수행되지 않아 중공군을 격멸하지는 못한 채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퇴각하는 적을 격멸하기위해 실시된 작전은 적 8,000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의 효과에 더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역자 주).

90) killer작전의 결과 한강에서 강릉에 이르는 방어선을 확보한 8군사령부는 전선의 중앙에 돌파구를 형성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북한군을 분리·격멸하고자 하였다. 이 작전은 서울 탈환을 목적으로 했으나 최소한의 대가로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전 결과 UN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을 재탈환 하는데 성공하였다(역자 주).

91) 1952년 3월 27일 소련군 참전에 대한 첩보가 제시되면서 미 제8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을 넘어서 되도록 북쪽으로 전선을 추진시킬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진강 하구에서 화천 저수지를 거쳐 양양으로 이어지는 Kansas선을 확보하기 위해 Rugged작전이 실시되었다. 작전이 전개되면서 좌익의 부대는 순조롭게 전진하여 목

을 재탈환하고 38도선을 넘어 임진강과 대포리를 잇는 캔자스선(Kansas Line)까지 진격하였다.<sup>92)</sup> 공산주의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실패한 4차공세 시 원주 및 지평리 일대에서 부대를 UN군의 화력에 노출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소모전을 수행하는데 공헌하였다. 1951년 2월의 UN군 사령부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부대는 UN군의 화력과 혹독한 날씨 및 질병에 의한 막대한 소모에 의해서 고갈되었다. 적은 전선을 따라 가해지는 어떠한 중요 공격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sup>93)</sup>라고 기록하였고, 리지웨이는 그의 저서 *The Korean War*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제8군은 한강으로 돌아오며 한강을 도하하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는 여러 전투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이상의 희생은 아니었다. 우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강요하거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에 의해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무모하고, 무계획적으로 전진하는 개념의 전투를 치르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어떤 작전은 놀랄 정도로 적은 사상자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대대병력 이상이 참가한 몇몇 전진에서는 희생자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계획, 시기적절한 실행, 부대 간의 밀접한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병, 포병, 공군 사이의 오랜 협조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94)</sup>

맥아더는 3월초 합참에 “지속적이며 고갈적인 소모전이 공산주의자들의 병력과 보급 양측 면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sup>95)</sup>

표에 도달하였으나 우익은 중공군 39군의 저항에 복착하였다. 이에 화천댐을 점령하고 수문을 개방하여 중공군의 철수를 유도하고 치열한 전투를 걸쳐 중국에는 캔자스선이 확보되었다(역자 주).

92) Matthew Ridgway,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MacArthur, 3 April 1951, Box 20, *ibid.*

93) GHQ UNC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270:66/22/01, RG 407, NARA.

94) Ridgway, *Korean War*, 111.

95) UNC Report to the JCS, 1~15 March 1951, undated, Records of the JCS,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LHCMA), London, United Kingdom.

1951년 1월 중순 트루먼은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을 한국에 보내어 미 제8군의 사기를 점검하도록 했다. 리지웨이의 성공에 대한 그들의 보고는 소모전의 효과와 제한전쟁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를 소멸시켰다.<sup>96)</sup> 그 보고에 의해서 리지웨이의 작전전략은 워싱턴에서 빠르게 인정되었고, NIE(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는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해서 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했다. 반도지형은 많은 수의 중공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투를 설정한 지역 내로 한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은 전투를 수행하는 UN군의 병력 손실을 감소시켰다.<sup>97)</sup> 러스크는 2월 11일 “Outline of Action Regarding Korea”에서 리지웨이의 전략을 적용하여 “UN군은 최소한의 손실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것에 집중한다.”<sup>98)</sup>라고 기록하였고 이는 정전이 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소모전략 발전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정전협상을 명시된 작전목표로서 정했다는 점이다. 2월초 리지웨이는 제8군의 역할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크게 공헌하는 것임을 암시했다. 더하여 그는 5월에 실시된 정전협상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다.<sup>99)</sup> 트루먼과 애틀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정전협상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확정 짓지 않고 있었다. 1951년 2월 13일, 중앙정부와 합참은 전쟁의 장기목표에 관하여 논의했다. 러스크는 전쟁의 목표가 적이 정전협상과 ‘이전 상태(status quo ante)’를 회복하는 것에 동의할 때까지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브래들리, 셔먼(Admiral Forrest P. Sherman, Chief of Naval Operations) 반덴버그, 콜린스, 니체(Paul H. Nitze, Head of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에 동의했

96) Secretary of State Meeting, 19 January 1951, *FRUS* 1951, 102.

97)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Maintaining a Beachhead in South Korea”, 11 January 1951, *ibid.*, 57.

98) Dean Rusk, “Outline of Action Regarding Korea”, 11 February 1951, *in ibid.*, 167.

99) Minutes of Conference with Corps Commanders, 8 February 1951, Almond Papers.

다.<sup>100)</sup> 이제 관심은 소모전의 사용을 통해 정전협상을 강제시키는 것에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전 상태' 회복을 기본으로 하는 정전협상을 추구하기 위한 최종 결정에도 3월 말까지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sup>101)</sup>

1951년 3월 말경 러스크의 소모전에 관한 대략적인 개념은 완전하게 정립된 작전전략으로서 발전하였다. 리지웨이는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모전을 수행했다. 그것은 6·25전쟁 중 가장 대규모였던 공산주의자들의 5차 공세를 저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4월에 UN군 사령관이 된 리지웨이는 여름에 정전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UN군 사령부에서 제안하는 휴전 위치에 동의하도록 소모전을 알맞게 적용했다. 소모전은 1951년 11월, 공산주의자들이 UN군 사령부가 요구한 휴전선의 위치를 인정했을 때 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리지웨이는 소모전에 대한 선호가 유별났다. 맥아더 같은 유명한 다른 지휘관들은 전쟁의 단계적 확대를 보다 많이 지지했다. 그의 전임자와 후임자-워커, 맥아더,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클라크(Mark W. Clark), 테일러(Maxwell D. Taylor)-모두 작전전략을 개념화하는데-특히 소모전을-뛰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상자를 최소화 하는 점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기꺼이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으며, 제한된 목적을 선호하지 않았다.

소모전은 1953년 정전될 때까지 UN군의 작전전략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소모전은 미국 내에서 국내적으로나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원했고 제한된 목적에 실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얻은 것이 없을 때 6·25전쟁의 사상자에 대한 측면은 받아들여 질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정부는 확전을 기꺼이 지지하였으며 보다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작전

100) Memorandum for the Record of a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13 February 1951, *FRUS 1951*, 174~177.

101) JCS to Marshall, 27 March 1951, *ibid.*, 285.

전략구사를 수용하였다.

6·25전쟁에서 전개된 소모전의 개념화에 대한 사례연구는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서, 다른 전통적인 작전전략은,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의 증가와 다대한 사상자의 발생 없이 6·25전쟁에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모전이 실용적인 작전전략으로서 강조되었다. 두 번째로, 러스크와 리지웨이가 없었다면 소모전략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모전략을 제안하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워싱턴의 신중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소모전략이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하다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혹독했던 1951년 초기에 소모전략을 작전전략으로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 (2) 소모전략과 베트남전쟁

6·25전쟁이 정전된 뒤 미군은 소모전략을 정식 교리화 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전사상자의 발생으로 인해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대부분의 군인들은 소모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적인 작전전략과 함께 제한전쟁을 경멸했다.<sup>102)</sup> 심지어 미군은 제한전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모전을 교리화 하지 않았다.<sup>103)</sup> 대신, 1950년대 후반 육군은 전통적인 작전과 전술핵무기의 조합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초에는 특수부대의 양성 對 게릴라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sup>104)</sup> 따라서 1965년 미국이 대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전개하기 시작했을 때, 미군들은 6·25

102) Fredrik Logevall, *Choosing War: The Lost Chance for Peace and Escalation of War in Vietna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65.

103) David Fautua, "The 'Long Pull' Army: NSC 68, the Korean War, and the Creation of the Cold War U.S. Arm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1 (January 1997): 118.

104) Andrew Bacevich,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Washingt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6), 16, 53, 60~69.

전쟁 이후 소모전 수행에 대한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였다.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반면 미국은 독립된 비공산화정부로서의 남베트남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했다. 1964년 후반기부터 1965년 전반기까지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북베트남에게 남베트남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공식화 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전개하려고 했다. 미군은 1965년 전반기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게 될 작전전략이 개발되었다.<sup>105)</sup>

미국은 베트남전을 위한 작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위협의 증가, 게릴라전 그리고 남베트남의 군사적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하여 이러한 제한사항은 소모전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한국에서와 같이, 위협의 증가는 미국에게 가용한 작전전략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이나 중공과의 확전을 원치 않았다. 북베트남의 침공을 포함하여 적의 군사력을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작전전략은 지지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작전전략은 중국이 분명히 반응을 보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1965년 6월의 CIA 보고문건에 따르면, 정보부서는 미국이 북베트남을 침공할 경우 중공이 대규모의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sup>106)</sup> 심지어 단기간의 북베트남 침공도 망설여졌으며, 존슨 행정부는 공습이 중공군의 개입을 재촉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했다.<sup>107)</sup> CIA는 만약 북베트남의 '극히 중요한 부분들'이 공습으로

105) Logevall, *Choosing War*, 269.

106) Letter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W. Raborn to President Lyndon Johnson, 12 June 196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4, *Vietnam 1964-1966*, 4 vols. (Washington: GPO, 1992-98), 769. Cited hereafter as *FRUS Vietnam*.

피해를 받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했다.<sup>108)</sup> 더하여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단지 남베트남 내에서 싸우는 것도 중공의 참전, 혹은 더 악화될 경우 즉각적인 소련의 서베를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09)</sup>

베트남과 북베트남은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그들은 수많은 매복과 습격 작전을 수행했고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전투를 회피했다. 게다가 취약한 남베트남의 목표에 대한 정규적인 공격에도 게릴라 전술을 가미하였다. 게릴라전은 미국에게 작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기동전과 같이 결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작전전략은 적과의 교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북베트남군이 대규모전투를 회피하고, 병력을 교외에 산개해 놓는다면, 그들은 하나의 결정적인 전투나 전역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전쟁에서 역시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남베트남의 군사적 상황은 1965년 초기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베트남과 북베트남 육군의 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베트남은 남베트남군의 부대와 진지들에 대하여 성공적인 연대급 공격을 실시했다. 미국은 가능한 빨리 이러한 정규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소모전략을 도입하기전 일련의 다양한 작전전략을 시험하였다. 첫 번째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사고문관을 배치하고 對 게릴라-비정규전의 수단으로서 게릴라는 정치적 전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작전을 수행하였다.<sup>110)</sup>

107) Westmoreland from to Admiral Ulysses Grant Sharp, 11 June 1965, Westmoreland Massage File COMUSMACV, U.S. Army Center for Military History(CMH), Washington, D.C.

108)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John McCone to President Johnson, 13 March 1965, *FRUS Vietnam*, 2:437.

109) Minutes of Meeting of President Lyndon Johnson,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cNamara, General Earle Wheeler, and Paul Nitze, 22 July 1965, *ibid.*, 3: 209-217.

對 게릴라작전은 인구밀집지역과 경제적 중심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게릴라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지에서 싸우거나 정글로 퇴각하도록 강제하여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이다.<sup>111)</sup> 그러나 베트콩이 수행하는 작전의 강도 상승, 남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불안, 남베트남군의 무능함 같은 요소들이 對 게릴라작전의 효과를 손상시켰다. 더구나 소규모 정찰대나 지역 민병대들이 수행하는 對 게릴라작전만으로는 베트콩의 집중적인 공격에 대처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시도는 1964년 말부터 1965년 초, 전투가 격렬해짐에 따라 일련의 보복적인 공습을 가하는 것이었다. 테일러 전권대사(Ambassador Maxwell Taylor)나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샤프(Ulysses Grant Sharp) 제독과 같은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공군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미지상군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sup>112)</sup> 1965년 2월 28일, 미국은 보복공습으로서 Rolling Thunder작전이라고 알려진 전략폭격을 실시했다.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북베트남에게 미국과 남베트남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sup>113)</sup> 공습은 위협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Rolling Thunder작전은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의 인원과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폭격은 종전까지 미국의 전략구성요소로서 유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폭격이 너무 점진적이어서 1965년 베트콩들이 올린 성과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세 번째 시도는 테일러 대사의 '고립화 전략(enclave strategy)'이었다. 이 전략의 개념은 미 지상군이 남베트남의 인구밀집지역을 보호하고, 방어

110) Robert Thompson, *Defeating Communist Insurgency: The Lessons of Malaya and Vietnam*(New York: Praeger, 1986), 56.

111) *Ibid.*, 48~57.

112) Logevall, *Choosing War*, 260; Krepinevich, *Army and Vietnam*, 138.

113) *The Pentagon Papers: The Defense Department History of US Decision making on Vietnam*, Senator Gravel Edition(Boston: Beacon Press, 1972), 3:277.

를 위해 필요할 경우 'enclave'로부터 나와 외부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1965년 3월 9일, 남베트남 육군이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미지상군의 첫 번째 주요 분견대인 해병대가 다낭에<sup>114)</sup> 상륙하였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기지경계와 베트콩의 공격으로부터 다낭과 다낭공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4월에 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지시(NSAM 328)는 미 지상군에게 'enclave' 인근에서 적의 작전에 대응하고 對 게릴라작전을 허가하였다.<sup>115)</sup>

그러나 이 세 가지 조치들 중 그 무엇도 남베트남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6월까지 베트콩은 극적으로 증가하는 성공들을 만끽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남베트남의 진지를 돌파했고, 남베트남 육군은 일주일에 하나씩 대대를 상실하였다. C·D구역(War zone C·D)내<sup>116)</sup> 베트콩의 활동은 사이공을 위협했다. 주월미군 사령관인 웨스트멀랜드는 베트콩이 중앙고원일대에 침투하여 남베트남을 이등분 할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sup>117)</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웨스트멀랜드는 샤프제독과 합참에게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도권을 탈취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세작전 허가를 요청했다. 그의 전략선택은 소모전략이었다.<sup>118)</sup>

1965년, 많은 수의 핵심 정책입안자들은 6·25전쟁 당시에 소모전에 대하여 배웠었다. 러스크는 이제 국무장관이 되어있었고 1953년 당시에 제8

114) 남중국해에 면한 주요항구로, 남베트남의 군사적 요지였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안남 왕국 내의 프랑스 직할 식민구역으로 투란이라고 하였다. 1965년 3월 미 해병대가 이 항구를 상륙지점으로 하였고, 또 한국의 청룡부대가 주둔하였다(역자 주).

115) Wheeler to Sharp, 20 March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Wheeler to Westmoreland, 3 April 1965, Westmoreland Correspondence, CMH.

116) 미군은 작전의 편이를 위해 작전지역을 A·B·C·D로 구분하였다(역자 주).

117) William Westmoreland, *Report on Operations in South Vietnam, January 1964~June 1968*(Washington: GPO, 1968), 98; Westmoreland to Sharp, 13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18) Westmoreland to Sharp, 13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이것은 같은 날 웨스트멀랜드가 샤프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세지이다.

군사령관이었던 테일러는 베트남대사였다. 주월미군 사령관인 웨스트멀랜드는 1953년에 유명한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지휘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정형화한 베트남전에서의 소모전략은 6·25전쟁에서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1965년 초, 웨스트멀랜드는 빈자(Binh Gia)전투가 남베트남의 경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켰을 때부터 소모전 전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sup>119)</sup> 베트남과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은 對게릴라작전과 '고립화(enclave)'전략을 너무 수동적이게 만들었다.<sup>120)</sup> 또한 Rolling Thunder작전은 너무 점진적이어서 근 시일 내에 미국의 목표를 적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sup>121)</sup> 정규적인 공격은 정규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sup>122)</sup> 합참은 웨스트멀랜드를 지지했다. 3월이 되자 그들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패배를 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다.<sup>123)</sup> 그러나 웨스트멀랜드는 적이 대규모 전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북베트남과 지상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 승리를 배제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sup>124)</sup> 또한 적의 형태가 적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씩 격멸하도록 만들고 있었다.<sup>125)</sup> 웨스트멀랜드는 이러한 제한 사항 때문에 전쟁에 장기간 지속되는 소모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119) Westmoreland, *Report on Operations in South Vietnam*, 97.

120) Leslie Gelb and Richard Betts, *The Irony of Vietnam: The System Worked*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e, 1979), 120~123. Westmoreland to Sharp, 15 March 1965, Westmoreland Correspondence.

121) William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6), 119.

122) Sharp to Wheeler, 6 March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23) Memorandum from the JCS to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cNamara, 20 March 1965, *FRUS Vietnam*, 2:466; Wheeler to Sharp, 20 March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24) 승리를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교전이 필요했지만 북베트남과 베트남은 전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웨스트멀랜드는 결정적 승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다(역자 주).

125)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 153.

믿었다.<sup>126)</sup>

당시까지 웨스트멀랜드의 소모전에 대한 관념은 막연하고 확정적이지 못했다. 그는 적의 주요부대와 편성에 대해 강력한 작전템포를 유지하는 것 외에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소모시키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정하지 않았다. 1965년 3월 베트남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군지휘부와 주월미군사령부(MACV: Military Advisory Command Vietnam)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행동수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석과 개발은 핵심지역을 고수하고 중앙고원에서 북베트남 세력을 철수하도록 강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sup>127)</sup> 5월에 있었던 베트남의 연속적인 승리 이후, 웨스트멀랜드는 남베트남에 미군 및 연합군 44개 대대를 전개하도록 제안했다.<sup>128)</sup>

6월 13일, 웨스트멀랜드는 그의 직속상관인 샤프제독에게 장차 작전의 개념이 담긴 비망록을 보냈다. 그는 미 지상군이 지역적인 게릴라부대보다는 잘 구성되고 무장된 적 정규군과 직접적으로 맞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주월미군의 작전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베트남군과 더불어 일반예비대에 속한 미군의 공중강습부대와 해병대대를 주요 북베트남군과 베트남 부대에 대한 반격·탐색·격멸작전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베트남군이 사이공(Saigon)과 메콩강 하류 삼각주일대(Mekong delta)의 해안 지대를 따라 발달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전력집중이 가능해질 것이다.<sup>129)</sup>

미군의 지상작전은 남베트남군이 對 게릴라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형태로 수행될 예정이었다. 미군의 주요 역할은 베트남에 대한 반

126) William Westmoreland, "A Military War of Attrition," in *The Lessons of Vietnam*, ed. ED Scott Thompson and Donaldson Frizzell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1977), 60.

127)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 128.

128) Westmoreland to Sharp, *FRUS Vietnam*, 2:772~774

129) General William Westmoreland to Admiral Ulysses Grant Sharp, Memorandum on Concept of Operations, 13 June 1965, *Pentagon Papers*, 4:606.

격작전과 그들의 기지에 대한 강습을 통해서 적과 싸우는 것이었다.<sup>130)</sup> 웨스트덜랜드는 후에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지에서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계획된 균형 잡힌 타격부대를 만드는 것”이 그가 가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131)</sup>

합참의장이었던 윌러장군(Earle G. Wheeler)에게 보낸 메시지서 웨스트덜랜드는 자신의 사고에 있어 소모전략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는 메시지서 “우리가 남베트남 혹은 북베트남에게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장기화시켜야만 한다. 분쟁은 소모전략이 사용되는 전쟁이 되었다. 나는 전쟁의 결말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sup>132)</sup>라고 썼다.

한편 웨스트덜랜드는 샤프제독과 윌러장군에게 소모전략이 유일하게 가능한 작전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6월 11일 샤프에게 보낸 메시지서 “나는 단기간의 핵전쟁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을 획득하고 적을 유리한 비율로 마모시키는 목표를 가진 군대와 시설을 증강하는 것에 의해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버티는 것 외에 실현가능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다.”<sup>133)</sup>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6월 26일 윌러장군에게 보낸 메시지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착상을 다각도로 탐색해 왔다. 우리는 신속한 결과를 얻게 될 어떤 기발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분쟁의 확대라는 용어를 생각해야 하며, 거대하게 증가된 노력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 한다.”<sup>134)</sup>라고 기술하였다.

130) Westmoreland to Wheeler, 26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31) Krepinevich, *Army and Vietnam*, 165.

132) Westmoreland to Wheeler, 24 June 1965, *FRUS Vietnam*, 3:42.

133) Westmoreland to Sharp, 11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웨스트덜랜드는 존슨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6월 초 베트남에 도착한 맥나마라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se Robert S. McNamara)과 롯지대사(Ambassador Henry Cabot Lodge), 윌러장군에게 제안한 작전전략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는 세 단계로 구성된 소모전을 계획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군과 동맹군이 남베트남의 군사거점을 보호하고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도권을 탈취하고 주요지역에서 적 부대를 계속 공격하여 격퇴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남베트남 내에서 모든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붕괴를 추구하는 것이었다.<sup>135)</sup> 맥나마라와 윌러는 웨스트덜랜드의 계획을 지지했다. 존슨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서 맥나마라는 웨스트덜랜드가 어떻게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소모시키고자 하는 지를 묘사했다.

우세한 군사력의 공세적인 사용에 의해 남베트남과 미국 및 제3국의 부대는<sup>136)</sup> 주도권을 획득·유지할 것이며, 적을 마멸시키고 괴멸시키기 위해 적에게 불리한 상황을 강제하고, 적이 회복하거나 균형을 되찾는 것을 거부하기위해 작전 템포를 유지하며, 남베트남에서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주요 부대들에 대한 집요한 전투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작전은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게 높은 물자소모율을 갖도록, 더 높고 더 심한 강도 안에서 싸우게 강제하고,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장에 있는 부대에 대한 그들의 보급능력을 제한할 것이다.<sup>137)</sup>

위와 같은 작전 때문에 북베트남은 아마도 남베트남과 미국에게 호의적이 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었다.<sup>138)</sup> 맥나마라는 “베트남에서 우리의 목표는

134) Westmoreland to Wheeler, 26 June 1965, *ibid.*

135) Weigley, *American Way of War*, 465; Westmoreland, *Report on Operations in South Vietnam*, 100.

136)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국 부대(역자 주).

137) *Pentagon Papers*, 4:298.

138) *Ibid.*, p. 296; McNamara to Johnson, 1 July 1965, *FRUS Vietnam*, 3:97.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게 자신들의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이나 소련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원한다.”<sup>139)</sup>라고 기술하였다.

위의 인용구의 묘사에 따르면 웨스트멀랜드는 강력한 작전 템포를 유지하게 하는 ‘질적이고 양적인 우세’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세는 물적 자원에 있어 우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워싱턴 행정부가 미군이 베트콩과 북베트남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는데 필요한 병력증원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1965년 6월 30일 존슨은 더 많은 지상군을 요구했던 웨스트멀랜드와의 회의에서 44개 대대(미군대대는 34개였음)의 전개를 승인함과 동시에 그에게 공세적인 작전개시를 허가하였다. 그때부터 웨스트멀랜드는 그의 소모전략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140)</sup>

그러나 많은 장교들은 소모전략이 실현가능한 단 하나의 작전전략이라는 그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샤프제독은 공습에 초점을 맞추고 Rolling Thunder작전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소모전에 있어 미국보다 오래 버틸 것이라고 믿었다. 베트남의 역사·교리·사상자를 감내하는 점등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sup>141)</sup> 샤프의 견해에 있어 최선의 전략은 강화된 항공전역에 의지하는 것이었다.<sup>142)</sup> 제3해병상륙전단의 사령관이었던 월트중장(Lieutenant General Lewis W. Walt) 역시 소모전략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는 북베트

139) McNamara to Johnson, 20 July 1965, *ibid.*, 3:171.

140) Weigley, *American Way of War*, 465.

141)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해 왔으며 근대 이전에는 중국의 지배를 거부해왔다. 또한 그들은 독립과 통일을 위한 전쟁에서 발생하는 교리를 개의치 않았으며 동시에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상자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높은 투쟁심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베트남의 특성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동시에 그들을 질리도록 만들었다(역자 주).

142) Sharp to JCS, 12 January 1966, *FRUS Vietnam*, 4:48.

남 국경지대의 해병대 작전구역에서 對게릴라작전에 초점을 맞췄다. 1965년 전반기 말경 그와 웨스트멀랜드는 對게릴라작전과 ‘탐색격멸작전’에 해병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였다.

존슨 행정부의 각료들 역시 소모전략을 반대했다. CIA는 베트콩이 미 지상군과 싸우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소모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sup>143)</sup> NSA의 특별보좌관이었던 번디(Special Assistant, McGeorge Bundy)는 미국의 지상작전과 항공전역을 “성급한 어리석음”이라고 불렀다.<sup>144)</sup> 번디가 보기에 미군은 게릴라들과 싸우도록 훈련되지 않았고 공습은 그 실행가치가 의심스러웠다. 볼 국무차관보(Undersecretary of State, George W. Ball)는 공공연하게 미국이 게릴라전에서 승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기간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고 좋지 못한 결말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윌리, 맥나마라, 테일러, 샤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베트남전쟁을 위한 작전전략을 정형화 하는 것이 어렵고, 선택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196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웨스트멀랜드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소모시키기 위한 작전절차를 정의하고 규정화 하였다. 그의 작전전략은 리지웨이의 것과 특성이 달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서 우선적인 소모전략의 과정이 종심을 이용한 철수나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탐색격멸작전’(Search and Destroy operation)이라는 것이었다. ‘탐색격멸작전’은 교전을 추구하고 교외에서의 공세적인 기동을 통해 적의 전투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적 부대를 찾아내면 추격하고, 차단하며 격멸하였다.<sup>145)</sup> 웨스트멀랜드는 ‘탐색격멸작전’만이 베트콩의 상투적인 공격을 무

143) National Security Meeting [All principal decision makers], 21 July 1965, *ibid.*, 3:194~195.

144) National Security Advisor McGeorge Bundy to McNamara, 30 June 1965, *ibid.*, 3:90.

145) Westmoreland to Lieutenant General Lewis Walt, 24 November 1965, Westmoreland

위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탐색격멸작전'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방어가 제공되는 화력기지(fire base)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sup>146)</sup> 6·25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지를 제외하고는 지형을 고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웨스트멀랜드는 그의 저서 A Soldier Report에서 "우리는 적을 전장으로 이끌어내고 높은 피해를 입히려는 목표를 성취하였다. …… 무엇 때문에 고지대를 계속 고수해야 하겠는가?"라고 쓰고 있다.<sup>147)</sup> '탐색격멸작전'은 주로 주요 마을로부터 떨어진 베트남 내지에서 수행되었으며, 작전의 규모는 단일소대로부터 사단전체까지 다양한 제대가 참가하였다. 웨스트멀랜드는 전투부대들에게 기동성을 강조하였고,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관개로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철수시킬 때 헬리콥터가 핵심적인 수송수단으로 등장하였다.<sup>148)</sup>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사이의 소모전에는 유사한 점도 존재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을 살상하는 수단으로서 화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화력은 6·25전쟁 이후 미군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몇 안 되는 소모전략의 요소들 중 하나였다. 화력은 일반적으로 병력을 대체하는 역할로 간주되었다.<sup>149)</sup> 웨스트멀랜드는 베트남에게 "24시간 연속으로(round the clock)" 쉴 새 없이 공격하기 위해 모든 미군에 대한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다.<sup>150)</sup> 화력기지(fire base)는 포병과 박격포 화력을 제공함으로써 전장에 있는 부대를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습 같은 화력지원 역시 웨스트멀랜드가 구상한 소모전략의 기본적인 요소였다. 공습은 전술 항공기

Message File COMUSMACV, CMH.

146) Westmoreland to Sharp Concept of Operations, 13 June 1965, *FRUS Vietnam*, 3:3.

147)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150.

148) CMH :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Westmoreland to Wheeler 26 June 1965.

149) Bacevich, *Pentomic Era*, 55~56.

150) Westmoreland to Wheeler, 26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로부터의 공중지원뿐만 아니라 B-52전략폭격기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1965년 6월, D구역(War Zone D)에서 실시된 제173공수여단의 작전은 공중지원에 있어서 B-52폭격기의 사용에 관한 웨스트멀랜드의 청사진이었다. 여단은 작전구역 내에서 B-52 폭격기와 협조된 전진을 실시했다.<sup>151)</sup> 웨스트멀랜드는 작전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sup>152)</sup> 그 이후 그는 B-52의 공습을 반복가능하고 가치 있는 부속물로서 자신의 소관 내에 있는 항공전력으로 간주하였다. 보병대대는 B-52의 공습이 이루어진 항적 내에서 공격했고, 공습에 의한 피해와 혼란을 이용해 베트남과 그들의 보급품 및 각종 시설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입혔다. 웨스트멀랜드는 월러장군에게 한 달에 B-52 800소타(sorty)가<sup>153)</sup> 필요하다고 밝혔다.<sup>154)</sup>

몇몇 주요한 작전은 웨스트멀랜드와 주월미군 사령부에게 소모전략의 실현가능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여름과 가을동안 해병과 제173공수여단은 일련의 '탐색격멸작전'을 수행했다.<sup>155)</sup> 작전은 중앙고원(Central Highland)내의 라드랑계곡(La Drang Valley)에 대한 미 제1기병사단의 강습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제1기병사단은 10월과 11월 북베트남군 사단과 혈전을 벌였고 마침내 계곡을 확보하였다. 이것은 전장에 부대를 수송하기 위해 대규모 헬기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웨스트멀랜드는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부참모총장 애브리햄장군(U.S. Army Vice Chief of Staff, General Creighton W. Abrams)에게 전투에 의해 공중기동전술의 효과성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sup>156)</sup> 당시 전투에서 중령으로서 대대장이었던 무어중장

151) Westmoreland to Sharp, 20 June 1965, *ibid.*

152) Westmoreland, Report on Operations in Vietnam, 98.

153) 항공기 한 대가 완전무장 후 출격하여 작전을 실시하고 귀환하는 것을 1소티라 함(역자 주).

154) Westmoreland to Sharp, 20 June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55) Westmoreland to Sharp, 4 October 1965, *ibid.*

156) Westmoreland to General Creighton Abrams, 21 November 1965, *ibid.*

(Lieutenant General Harold G. Moore)-그는 *We Were Soldiers Once ... And Young*를 저술하였다-이 계측한 살상비율(미군 병사 1명당 북베트남군 12명)은 웨스트덜랜드와 그의 참모였던 두푸이 소장(Major General William E. Dupuy)에게 소모전략의 효과를 확신시켰다. 무어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살육전을 겪은 이 두 장교(웨스트덜랜드와 두푸이)들이 말했던 것은 그들이 소모전략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에게 죽음에 이를만한 출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sup>157)</sup>

리지웨이의 경우와는 달리 위의 작전들은, 소모전략의 특징으로서 웨스트덜랜드가 사상자를 최소화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드랑계곡 전투(the Battle for La Drang Vally)에서 미군부대들은 호되게 대가를 치렀다. 예를 들어, 미 제1기병사단의 두 개 대대의 사상률은 50%에 근접했다.<sup>158)</sup> 일반적으로 ‘탐색격멸작전’은 미군의 보병전력을 소모시켰다. 1965년 11월 웨스트덜랜드는 하와이에 있는 윌터장군에게 모든 보병부대들이 많은 사상자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게다가 그는 작전템포가 빨라짐에 따라서 사상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159)</sup> 웨스트덜랜드는 강력한 작전템포가 일시적으로 높은 살상비율의 원인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는 공세적인 전술이 신중한 것보다 적을 신속하게 파괴함으로써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믿었다.<sup>160)</sup> 그러나 웨스트덜랜드가 강력한 작전템포의 유지가 높은 사상자

157) Harold Moore and Joseph Galloway, *We Were Soldiers Once ... And Young*(New York : Harper Perennial, 1993), 399.

158) Michael Clodfelter, *Warfare and Armed Conflicts : A Statical Reference to Casualties and Other Figures, 1618~1991*(Jefferson, N.G : McFarland Press, 1992), 1233~1236.

159) Westmoreland to General Waters, 16 November 1965, Westmoreland Message File COMUSMACV, CMH.

160)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152.

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가 북베트남군의 생명과 미군의 생명을 교환하는 소모전을 선호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성공적인 소모전략수행을 위해 베트남 및 북베트남군보다 높은 손실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웨스트덜랜드는 1966년 2월에 열린 호놀룰루 회의에서 그의 완성된 작전 전략을 존슨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sup>161)</sup> 회의는 본질적으로 베트남에서 미군의 작전전략으로서 ‘소모전략’을 비준하였다. 웨스트덜랜드는 작전전략의 주요 특성을 반복하여 말하고, ‘탐색격멸작전’이 베트남과 북베트남군을 소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sup>162)</sup> 또한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며, 적은 하나의 전투에서 전쟁을 패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sup>163)</sup> 오히려 보다는 많은 전역을 포함하는 일정시간동안 괴롭혀짐으로써 적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64)</sup>

소모전략은 1966년에 완전히 적용되었고, Masher작전과 Hastings작전 같은 대규모의 ‘탐색격멸작전’이 계획되었다. 지상전은 북베트남군이 비무장지대-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가르는-에 침투함으로써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해병대를 연대급 전투에 주력하도록 강제하였다.<sup>165)</sup> 남베트남 내에서 베트남과 북베트남군의 사상자는 미군과 남베트남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sup>166)</sup> 소모전략은 1968년 텃 공세(Tet Offensive)까지<sup>167)</sup>

161) *Ibid.*, 159~160.

162) Pentagon Papers, 4:315.

163) 하나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투가 매우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베트남은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소규모 전투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전쟁 전체의 국면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 (역자 주).

164) Press Conference, Honolulu, 5 February 1966, Westmoreland Paper, CMH.

165) Michael Hennessy, *Strategy in Vietnam : The Marine and Revolutionary Warfare in I Corps, 1965~1972*(Westport, Conn. : Praeger, 1997), 110.

166) R. Ernest Dupuy and Trevor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 From 3500 B.C. to Present*, 2nd rev. ed.(New York : Harper and Row, 1986), 1221.

167) Tet은 베트남의 설 연휴를 의미하는데 이 기간은 관례적으로 휴전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상부대에 있어서 미군의 작전전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소모전략은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탐색격멸작전'은 종종 유리한 여건이 되어야만 싸우는 베트남과 북베트남군과 교전하는데 실패하였다. 베트남과 북베트남군은 정글과 산을 이용하여 유린공격과 매복을 통해 미군을 괴롭히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6·25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내여론은 전쟁을 오래 끌고, 지속적인 사상자의 발생이 수반되는 전략과 제한적이며 표면적으로 모호한 목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소모전략은 남베트남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하였다. 타락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남베트남 정부는 반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배제하지 못했다. 대중들에게 반감을 얻음으로써 남베트남정부는 남베트남 내에서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성장 가능성을 허용하였다. 더욱이 대규모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베트남전에서의 소모전략은 전쟁의 말기까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는데 실패하였다.

베트남전에 대한 소모전략 적용 사례연구는 세 가지 주요 요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전략적·작전적 제한요소가 소모전략 적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위협의 증가와 게릴라전, 전투에서의 패배 등이 다른 작전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정규적인 지상작전에 대한 웨스트벌랜드의 선호가 제한요소와 결합하여 소모전략의 적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주월미군 사령관으로서 웨스트벌랜드의 생각이 베트남에서 소모전략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테일러나 샤프와 같은 다른 사령관들은 전략폭격이나 對게릴라작전 같은 다른 전략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만약 웨스트벌랜드가 주월미군사령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다른 전략이 채

택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소모전략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트남전쟁에서의 소모전략은 직접적으로 6·25전쟁의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었다. 베트남이 지닌 한국과의 몇 가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탐색격멸작전'과 화력의 결합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싸우기 위해 웨스트벌랜드와 그의 참모들이 개발한 것이었다.

## 4. 결 론

### (1)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에 대한 역사적 실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부터 나온 역사적인 증거들은 소모전의 보편적인 관념에 대한 주장을 부정한다. 첫 번째로 소모전을 유혈이 낭자한 지루한 싸움을 지향하지 않았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모두 적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해 사상자의 교환을 추구하지 않았다. 리지웨이는 소모전략의 기본요소를 사상자의 감내보다는 최소화로 규정하였다. 그의 관점에는 소모전수행에 있어 사상자를 증가시키는 무모한 행동을 회피해야 했다. 한편 웨스트벌랜드는 물론 리지웨이보다 덜 주의하기는 했지만, 그가 구사한 소모전략이 적보다 더 많은 손실로 고통 받는 위치에 놓여있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수적 우세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의 소모전의 특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6·25전쟁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UN군의 현저한 수적 열세로 인해서 소모전략을 선호했다. 웨스트벌랜드 역시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그의 전략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물적 우세는 두 전쟁의 소모전에 보이는 특징이다. 리지웨이와 웨스트벌랜드는 적의 사상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습과 포병화력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1968년에는 북베트남과의 휴전이 정식으로 협정되지 않았고 미군과 남베트남만이 휴전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북베트남의 기습으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커다란 희생을 치렀다(역자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의 사용은 소모전의 보편적인 관념의 예측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모전략은 공정과정과 같은 형태가 아니다. 웨스트멀랜드와 리지웨이는 적을 반복적인 포격과 폭격으로 파괴되는 일련의 타깃으로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화력과 기동성을 결합했다. 리지웨이는 화력을 중심후퇴와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에 나란히 이용했다. 이러한 작전에서 그는 종종 공산주의자들을 측면 포위하고자 시도했으며 손실을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병참선의 신장을 신장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웨스트멀랜드의 화력사용은 본질적으로 기동력에 의존했다. 베트남전쟁에 있어 항공기나 포병에 의해서 파괴되기 위해 고정되어 있는 목표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웨스트멀랜드의 화력이용은 게릴라들을 찾아내고 차단하기 위한 지상부대의 장거리기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모두 소모전의 목적이 적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모전략은 섬멸을 추구하는 작전전략의 대체 안이다. 두 전쟁에서의 소모전략은 모두 적이 정전을 위한 미국의 협상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제한된 목적을 추구했다. 작전적·전략적 강제사항이 철저한 섬멸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있어 주요 소모전에 대한 보편적 관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보편적인 관념은 소모전을 부정확하게 묘사할 뿐 아니라 소모전의 다른 사례 사이에 연속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 작전전략으로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사이의 소모전략은 현저한 차이가 난다. 리지웨이의 작전전략은 집중된 대형과 강력한 화력과 협조된 주의 깊고 제한된 전진과 중심 후퇴가 기본이었다. 반면 웨스트멀랜드의 작전전략은 화력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산개된 부대대형을 통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적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베트남전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다. 6·25전쟁에서 미국이 경험한 소모전이 베트남전의 소모전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 (2) 소모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연속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두 사례에서 도출되는 소모전의 일반적인 정의는 세부적이고 명확하기보다는 모호하고 보편적이다. 두 전쟁의 작전전략은 두 가지 기본 성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수단—중심 후퇴,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 공습, 포병화력, 탐색격멸 작전—을 통해서 적의 군사적 능력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과정을 거쳐 파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소모전은 신속한 결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리지웨이와 웨스트멀랜드는 성공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나 전역에서의 승리로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교전의 성공이 적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른 전통적인 전략들은 적을 점진적이고 잠식적으로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맥아더의 전략은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적을 완벽히 괴멸시키고자 했다.

두 번째로 소모전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소모전은 적부대가 남한을 점령하거나 남베트남의 다낭, 사이공 같은 지역을 탈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능을 했다. 반면 게릴라전, 테러리즘 같은 비정규적인 전략은 적 부대와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한다. 그렇지만 이들 전략은 실질적으로 적에 의한 지역·자원의 탈취, 국민에 대한 공격 등을 거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소모전략과 같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리즘도 적의 전투력은 잠식해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하다. 양자간의 차이점은 소모전략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국민과 자원을 방어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비정규적인 전략들은 소모전략이 내재하지 않고 있는, 정치적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시민들 안에서 교전한다는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소모전략 적용 외의 측면들

소모전의 보편적 관념은 지휘관들이 소모전을 구사하는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압도적인 우세와 부적절한 리더십이 그러한 원인이며 기동전과 같은 다른 작전전략이 채택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는 지휘관들이 소모전을 제외한 다른 전략—기동전을 포함—을 적용하는데 제한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략적·작전적 제한사항들은 다른 작전전략 선택을 제한하였고, 자연스럽게 소모전략 구사를 자극받았다. 6·25전쟁에서 위협의 증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압도적 수의 우세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게 만들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위협의 증가와 게릴라전, 다급한 군사적 상황이 소모전략 외에 다른 작전전략 적용을 할 수 없게 했다. 두 전쟁에서 모두 소모전략은 병력사용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점진적으로 적의 군사적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단일한 방법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상이한 제한상황들을 다루는데 적용할 수 있었다.

물론 강제로 제한된 선택인 소모전략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지휘관들과 정책결정자들인 적용가능한 단 하나의 작전전략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양한 선택에 대해 검토했고 전략에 대한 격렬한 논쟁 끝에 소모 전략을 선택했다. 6·25전쟁에서 많은 수의 장교들이, 특히 맥아더가,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주장했었다. 베트남에서는 많은 장교와 정책결정자들이 항공 전력에 대한 보다 큰 신뢰를 보내거나 북베트남을 침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전략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역사가들은 소모전이 베트남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전략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sup>168)</sup>

또한 제한사항들만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소모전략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두 사례에 대한 연구는 개인들과 그들의 생각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리지웨이와 웨스트멀랜드는 강제된 상황에 적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소모전략은 전략적·작전적 제한 사항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계획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그들 작전전략의 기본원칙으로서 적을 마모시키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6·25전쟁에서 러스크의 소모전에 대한 생각은 만약 리지웨이가 소모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쟁에서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사하게 베트남전에서도 소모전략은 웨스트멀랜드의 소모전에 대한 개념화와 변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없었다면 적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7. 9. 3.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소모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전략, 작전

168)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할 것. Krepinevich, *Army and Vietnam* : Hennessy, *Strategy in Vietnam*; and Harry Summers, *On Strategy : A Critical Analysis of Vietnam War*(Novato, Calif Presidio Press, 1995).

<ABSTRACT>

##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Attrition : The Korean and Vietnam Wars

Carter Malkasian

This Article attempt to provide a historically accurate description of attrition as an operational strategy. The Korean and Vietnam Wars contain prominent and commonly recognized example of attrition. These example clash with the popular image of attrition as a futile and bloody slogging match in which a commander ruthlessly trades the lives of his men in order to weaken the enemy at a relatively favorable rate. In these conflicts, attrition was a basic process of warfare,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methods. Although not necessarily optimal, it was a useful alternative to other operational strategies that were too costly or risky. Accordingly, the popular image of attrition—shared by many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 and military officers—may not reflect the actual history of attrition.

Key Words : Attrition,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Strategy, Operations

---

\* 본 영문초록은 저자의 영문초록은 전재한 것임.